

지경을 넓히는 교회(대상4:9~10)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대로 그는 그의 형제들과 가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다. 이 기도는 개인기도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로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지경을 넓히는 것이 교회생활의 소원이 되고, 본질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바란다.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교회가 설립61주년을 맞는 이 뜻 깊은 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자.

1. 비전의 크기를 키우십시오!

(창1:28)"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이것을 이루어가지 못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고, 사방팔방에서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는 개교회를 넘어 지역사회와 세계열방을 축복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개인과 가정을 넘어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세계열방을 향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자!

2. 관계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막3:33-35)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나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가족관을 갖고 산다. 이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족만 챙기고 혈연중심으로 교회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는 지경을 넓힐 수 없다. 교회는 항상 편협한 가족관과 인간관계로 인해 지경을 넓히는 일에 방해를 받아왔다. 혈연 가족중심의 교회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마음을 닫는다. 끼리끼리 인간중심의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관계를 하나님의 가족관계로 확장시켜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3. 헌신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고전3:6-8)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교회가 부흥하고 비전을 성취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인간의 노력을 귀히 보시고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자라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좋은 교회는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교회의 지경을 넓히려면, 그에 걸맞게 헌신의 수준도 높여야 한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려 헌신해야 한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다(빌4:18-19). 교회의 지경과 영향력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므로,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지경도 넓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